

[종합]

“한국 최혜국 대우 않겠다”

한미FTA 이틀째, 미국 강경입장 통보

농산물 개방도 재수정 요구할 듯

미국은 자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는 시장을 덜 개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이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면 우리측은 향후 미국과의 모든 분야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란 예를 들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국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은 국가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강경 입장에 따라 미국은 협상 둘째날인 이날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도 사실상 거부하고 재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 분야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 110여개 달하는 자동차 기술표준(안전기준)의 재·개정 문제를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의 상설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협상단 고위관계자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데 미국은 과거에 자국이 맺은 FTA 협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협정을 맺을 국가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안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측은 “과거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비교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이 체결할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협약의 기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첫날 협상에서 우리측이 미국의 공산품 개방 수정안을 거부,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둘째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문화수도 위상 걸맞는 정부지원 이끌어 내겠다”

24일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받은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적 조류는 아시아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며 “광주를 글자 그대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 송재구 위원장은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2년의 임기 동안 5년의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로 광주시를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모델로 조성하겠다”는 의의를 나타냈다.

정부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 위원장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하나만 건설하고 손을 떼겠다는 것은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기초 작업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중심도시 추진 기화단과의 불편한 관계 및 위촉장 수여가 늦

어진 것과 관련, 송 위원장은 “결과지들을 중요하지 않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광주시를 진정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비겼다. 송 위원장은 특히 “가까운 근현 대사에서 광주의 5·18 민주화쟁이 시대를 이끌었듯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광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민이 국민을 대표하고, 광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나주 탐방 도시 조성자인 나주 금현면 일대를 둘러봤다.

한국전력 등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20명은 24일 광주시가 마련한 '이전기관 임직원 지역탐방행사'에 참석, 광주·전남 공동 혁신/위탁기자 jwii@kwangju.co.kr

제2기 문화수도조성위 7개월만에 재가동

광주지역인 8명 참여 ‘긍정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최고 심의기구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7개월간의 표류 끝에 24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국제사업의 최고 심의기구인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구성되지 못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지난 2004년 3월 출범한 제1기 조성위원회(위원장 송기숙)가 올 3월 말로 임기(2년)를 끝내고 4월 19일 송재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에 내정됐을 때만 해도 조만간 조성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기대됐다.

문광부도 송재구씨가 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직간접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성위원회가 발족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광부는 조성위원회 발족이 늦어도 8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대통령 해의 순방을 이유로 9월 중순으로 미웠으며, 9월 이후에는 청와대 일정이 잡히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위원장 내정 이후 민간 조성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위원을 대거 추천한 송재구씨와 문광부의 안이 달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다 정부의 민간위원 인선작업이 더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추천 대상 전문가들

중 참여를 꺼리는 인사들이 많았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조성위원회는 그동안의 장기 표류에 따라 추락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메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2기 조성위원회는 민간 위원(14명) 중 광주지역 학계, 기업, 시민단체 관계자 등 무려 8명이나 참여(1기 2명 참여)해 지역의 의견 수렴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성위원회의 최후순 과제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건립이다. 설계 과정에 있는 문화전당은 정부의 예산 논리에 따라 부주차장 건립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만큼 당초 설계대로 외부주차장 건립과 금남로 차일없는 거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다만평

- 김종두



이미 '코미디 정책' 됐다

섬진강 인근 간 디스토마 감염률 높다

질병관리본부 국립타지역의 2~5배

섬진강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간 흡충(간 디스토마)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이 제출한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섬진강 인근인 광양, 곡성지역의 간 흡충 감염률은 타지역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섬진강 인근 곡성군 주민(1,506명)에 대한 기생충 감염

조사 결과 간흡충 양성률은 10.25%로 나타났으며 광양지역 주민(피검자수 1,046명)도 무려 15.2%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섬진강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무안군 주민(1,203명)의 간흡충 양성률은 3.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영암군 주민(1,277명)의 간흡충 양성률은 4.9%에 불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의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위 = 전남체신청, 광주지방기상청(오전 10시·전남체신청)

서울~ 광주 KTX 3만6,100원

철도요금 내달 9.3% 올라

서울(용산)~광주 KTX 요금에 2천800원 오른다는 등 다음 달부터 철도 운임이 평균 9.3% 오른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해 2003년 이후 동결해온

철도운임을 11월 1일부터 평균 9.3%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열차 종류별 운임 인상 폭은 KTX 통근열차 8%, 화물열차 10% 등이다.

이에 따라 호남선(용산~광주) KTX 요금에 3만3천300원→3만6천100원으로, 새마을호 2만9천700원→3만2천원, 무궁화호 2만원→2만1천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연합뉴스

문신

아파트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봉곡동 현진에버빌 3078단지 1109동 2105호 계약자명 이대열 상기 계약서를 분실 공고함.

Table with columns: 정정 공고,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공고 2006년 6월 20일 21시에 개편된 광주지방법원 제1회 민사 1부 재판관 이대열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 공고 본지 2006년 10월 24일(단)에 개제된 김도현 자가앞서프 노 라가(0911201-2, 라가(1468428, 01038188-70)는 노란 본신약기에 정정공고합니다.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부진로 80m 도로면, 한국농촌공사 열 건물. 017-620-2311, 010-2255-2600

상속한정승인공고

방 김석만(420729-15658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한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채권자의이신청 및 주권제출공고

2006년 10월 24일 개편된 주식회사 우미개발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인적분할하여 개편 주식회사 삼정개발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건물매매

- 3345평 167坪
● 지하층 지상3층 건물
● 고속도로 진입 1분내 가능
● 35M 대로변 아파트 후문
● 회사 사무실 사무용 적격
● 4층 층중 가능
● 매매가: 공시지가 또는 공인감정가
연락처 018-386-1186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산행안내

- ▲이대로산악회 1차분 비통산행등. 회합비리 10월(25일) 07시30분 새천야외(회합비리)로배출(회합비리)
▲가고파산악회 1차분 금산 전망 10월(25일) 08시 광주역(회합비리)
▲광주 한국산악회 1차분 10월 26일(일) 08시 영주체육관(회합비리)
▲광주산악회 1차분 10월 27일(월) 06시30분 마포보타닉공정(회합비리)
▲광주 산악회 1차분 10월 28일(화) 06시 08시30분 마포보타닉공정(회합비리)

2007 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신입생모집.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80명. 4년제대졸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6급이상의 공무원, 공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근무, 8년이상의 교직원, 군의 영면급 이상 정교, 의회위원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입학일: 2006. 10. 23(월)~11. 3(금). 문의처: http://altair.chonnam.ac.kr/~pacnu